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먹을 빵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 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복음을 나누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따르도록 도움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이 장을 떼어 낸 뒤 반으로 접으세요. 그런 다음, 그림을 들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